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의심 학술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Academic Librarians' Perception of Predatory Journals

홍명아 (Myoung-A Hong)*

심원식 (Wonsik Shim)**

초 록

OA 출판의 확산과 더불어 학술생태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그 중심에 부실 학술지 이슈가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응하고 연구자를 지원하는 학술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제로 부실 학술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계량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와 관련해 다양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집분석 결과 서비스 준비 및 의향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연구자 간의 협력 강화 및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Open Access (OA) and other changes to the academic publishing ecosystem have made the prevalence of predatory journals a significant concern. Academic librarians play a crucial role in the academic environment that protects researchers and takes action against predatory journals. Nonetheless, there isn't many research that looks into how academic librarians view and handle predatory journals. This study aims to give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overall perceptions of predatory journals among university librarians in South Korea.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academic librarians between April 10 and May 1, 2024, and 78 respondents' answers were examine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opinions among South Korean academic librarians on predatory journals are not all uniform. Based on their readiness and willingness to supply services, the respondents could be roughly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cluster analysis. The study affirms that training librarians and improving cooperation between academic libraries and researchers are critical prerequisites for the advancement of services aimed at predatory publications.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which is the first of its type to explore how academic librarians in South Korea see predatory journals, will be a valuable starting point for university libraries as they plan and offer services related to predatory journals in the future.

키워드: 부실 의심 학술지, 대학도서관 사서, 대학도서관 서비스, 탐색적 연구, 학술커뮤니케이션
predatory journals, academic librarian, academic libraries service, exploratory research, scholarly communication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hsw0579@naver.com)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wonsikshim@skku.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4년 8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8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9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41(3), 33-61,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3.033>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OA(Open Access, 이하 OA) 운동의 확산에 따라 학술생태계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변화하는 학술생태계에 발맞추기, 특히 OA 출판이라는 출판 방식에 익숙해지고 관련된 이슈에 대처할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연구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학술생태계 환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 OA 출판과 함께 등장한 부실 학술지 문제도 그렇다.

부실 학술지¹⁾는 OA 출판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논문출판비용)를 악용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학술지를 뜻한다(이효빈 외, 2019). 이들은 빠른 동료심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료심사 비용 등을 이점으로 내세워 연구자를 현혹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도록 만든다(Ebadi & Zamani, 2018). 부실 학술지 문제는 일찍이 Beall's list가 생겼던 2010년도부터 존재해왔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공장처럼 가짜논문을 대량 생산해 유료 출판하는 형태(paper mills)로까지 진화하였다.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학술생태계의 신뢰의 중심 기둥을 무너트리는 일이자 연구자 개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Retraction Watch(2023)에 따르면, 2021년 WoS(Web of Science, 이하 WoS)는 부실 학술지 출판사로 의심받는 출판사 중 하나인 Hindawi의 학술지 19종을 리스트에서 삭제하

였다. 이는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들의 명예가 하락한 것은 물론 제출했던 논문의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질이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부실 학술지를 식별함으로써 이를 피하게 할 수 있을까. 부실 학술지 블랙리스트인 Beall's List를 만든 Jeffrey Beall(2012)은 연구자들이 현재의 학술출판 환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합한 학술지의 식별을 위해서는 학술출판 문해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러한 학술출판 문해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Zhao, 2014). 대학도서관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Klain-Gabbay & Shoham, 2018) 학술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생태계의 주요한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을 긴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것인지 자문해야 하는데(Thomas, 2013), 여기에는 새로운 OA 출판 환경에 대해 연구자들이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Zhao, 2014) 포함된다. 따라서 OA 출판에 따른 학술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에게 OA 출판 방식에서 발생한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실 학술지 문제는 연구

1) 부실 학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기준이 없어 '부실 의심 학술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나 관련 논란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가 '부실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이니만큼 본 논문에서는 '부실 학술지'라는 용어를 사용함.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은 2018년까지 약탈적 학술지와 같은 부실 학술지 게재 비중이 7.3%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실 학술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박진서 외, 2019), 최근 조사에서도 연구자의 상당수가 부실 학술지 식별 서비스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노영희 외, 2023). 부실 학술지 문제는 신진연구자들에게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연구자들은 투고했던 학술지가 부실 추정 학술지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 투고를 철회해야 할지 말지 혼란에 빠져있는 등 부실 학술지 문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홍명아, 심원식, 2024).

이렇듯 부실 학술지로 인해 혼란을 겪는 연구자들에게 대학도서관은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지를 판단하는 완벽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신력 있는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Zhao, 2014).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기준의 핵심 인력이 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제로 부실 학술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으며, 해외에서도 소수의 연구만(Aboyade et al., 2024; Buitrago-Ciro & Bowker, 2020; Buitrago-Ciro, 2022)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생태계의 참여자이자 연구자들의 잠재적 협력자인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실 학술지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학술생태계가 앞으로 부실 학술지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탐색적인 연구이다. 이는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연구자들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2.1 부실 학술지 식별 및 판정 기준의 모호성

학술지와 같은 학술출판물은 주로 동료심사에 의존하여 논문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 받고 있다. 이는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공식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기능 중의 하나다. 하지만 부실 학술지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동료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등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동료평가 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학문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협한다(이호빈 외, 2019). 동료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할 부정확한 정보가 부실한 동료심사를 통해 그대로 출판되고 공유됨으로써 합법적인 연구를 방해하는 것이다(Elmore & Weston, 2020).

문제는 이러한 부실 학술지의 범주가 매우 넓어 연구자가 자칫 방심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다는 점이다(이인재, 2022). 예를 들어, 부실 학술지는 형식적인 동료심사라는 특징 이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란 특징을 지닌

다(노영희, 2023). 하지만 이에 대해 Crosetto (2021)는 단순히 공격적인 지대 추출 방식을 가지는 학술지라고 말하는 등 누군가에게는 해당 특징이 부실 학술지가 아닌, 단지 적극적인 마케팅이 특징일 뿐인 정상적인 학술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심사 기간도 빠른데다 심사과정까지 공개하는, 전통적 학술지보다 전문성이 높은 학술지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도 있을 정도다(홍명아, 심원식, 2024).

물론 부실 학술지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들 자체는 다수 존재한다. 2017년 이후로 업데이트는 중단되었지만 부실 학술지 문제를 처음 촉발시켰던 Beall's list가 있으며 특정 기준을 통과한 OA 학술지를 등재하는 리스트인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WoS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IF(Impact Factor, 이하 IF)를 제공하는 Clarivate Analytics의 JCR (Journal Citation Reports)도 있다. 최근에는 Cabells라는 상용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무결성(Integrity), 동료심사, 출판 관행 등의 주제로부터 만들어진 총 74개의 기준을 통해 학술지들의 부실 심각도를 평가해 제공 중에 있다(Cabells, 2019).

하지만 다양한 식별 도구 중 그 어떤 것도 학술지를 이른바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Oviedo-García, 2021). 학계에서 부실 학술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만큼(이인재, 2022) 하나의 도구만을 가지고 부실 학술지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고 보편화될 수도 없다(Dony et al., 2020). 최근 들어서는 부실 학술지가 논문 공장이라는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는데, 이 논문공장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논문들이 표절탐

지 도구인 iThenticate 테스트를 통과했을 정도로(Moore, 2020) 부실 학술지 식별 작업은 점점 더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처럼 부실 학술지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의 존재는 오히려 연구자들에게 다소 어려움과 피로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도구를 알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부실 학술지인지 아닌지를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ony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된 학술출판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에게 오랜 기간 학술정보 접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이 있는 대학도서관이(정경희, 2012) 부실 학술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Zhao(2014)는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는 최소한의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으며, IAP(InterAcademy Partnership, 이하 IAP) 또한 연구출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도서관이 연구자들이 부실 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해시킴으로써 좋은 관행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IAP, 2022). Elmore와 Weston(2020) 또한 연구자가 부실 학술지 식별 도구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사서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2.2 OA 출판 모델에 따른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와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필요성

OA 출판 모델의 등장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구독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어 도서관의 중

요한 업무영역이 연구자의 업무지원 등의 영역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Plutchak, 2012).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져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도 되었다(김순, 2019). OA 출판물 계기로 그동안 도서관이 맡지 않았던 학술정보의 생산 및 출판과정에 깊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정정희, 2012). Thomas(2013)는 OA 출판에 따라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OA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출판모델 이해, 저작권 및 출판 계약, 연구자금 지원 외에도 연구자의 문헌 제출 검토를 위한 OA 학술지 평가 지원 서비스가 새롭게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순(2019)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조사대상인 13개 대학도서관이 전부 OA 학술지 평가 및 OA 출판을 위한 투고 저널 선정 방법을 조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OA 학술출판에 있어 대학도서관이 중요한 지원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종종 적당히 좋은 정보에 만족해 버리거나(Brewerton, 2012), 단순히 자신의 학문 공동체에 구축된 일련의 관행에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OA와 같은 새로운 학술출판 환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는 데 장벽이 된다(Zhao, 2014).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설령 연구자들의 요청이 없어도, OA란 새로운 학술출판 환경과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Brantley et al., 2017).

특히 부실 학술지는 OA 학술출판 모델인 저자에게 APC를 받는 것을 악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만큼(이은지 외, 2020) 부실 학술출판에 대해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이 요구

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 연구자들에게 부실 학술지 관련 도서관 서비스로서 체크리스트,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AP, 2022). Buitrago-Ciro와 Bowker(2020)는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출판의 방지를 위해 제공 가능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학술정보 주제전문 사서 고용, 두 번째는 부실 학술출판과 관련한 워크숍 또는 교육 제공, 세 번째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부실 학술 출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들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부실 학술지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연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Cohen et al., 2019; IAP, 2022; Kurt, 2018; Mertkan et al., 2021),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Buitrago-Ciro(2022)와 Aboyade et al.(2024)의 연구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도 Aboyade et al.(2024)의 연구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뤄졌는데, 나이지리아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가 교수 지위를 가지고 승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물을 출판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지식의 수집, 제공자로서 학술출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itrago-Ciro(2022)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출판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OA에 대

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학술출판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OA 지식과 별개로 부실 학술지 관련 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는 대다수의 사서들이 부실 학술출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개발하고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했다.

양적 지표 위주의 연구성과 평가가 만연한 한국의 경우(노영희 외, 2022), 국내 일부 대학은 논문의 질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다작한 교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이병렬, 이종수, 2018), 이로 인해 쉽고 빠른 논문출판의 유혹이 많은 부실 학술지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부실 학술지 정보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수준은 물론 직접적으로 부실 학술출판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Buitrago-Ciro & Bowker, 2020).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다르게 국내 대학도서관의 부실 학술지 지원 서비스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대학도서관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는 CopyKiller, Turnitin 등의 표절 예방 도구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이용재, 이지옥, 2020). 연구지원 서비스 자체도 단순하고 형식적인 수준이 많아 대학 내 연구수행 과정에 있어 도서관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만 있다(이종욱 외, 2019). 심지어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통폐합에 따라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선애, 20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제공은 부실 학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서의 전문역량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실 학술출판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대학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실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서비스의 주제가 되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형태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과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학술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한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해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와 일반 대학 도서관 사서 간의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부실 학술지 관련 대학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있지만,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특히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

로 조사한 거의 유일한 연구인 Buitrago-Ciro (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이 크게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환경 측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및 지식 측면, 부실 학술지 관련 필요사항 인식 측면, 인구통계학적 사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 Buitrago-Ciro(2022)의 연구는 학술정보 관련 측면, OA 관련 측면, 부실

학술지 논란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 인구통계학적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OA 관련 측면을 제외하였다. 이는 학술정보와 관련해 사서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인식 및 전문성의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Klain-Gabbay & Shoham, 2018), 오히려 OA 관련 문항이 응답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부실 학술지 논란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대응 측면의 문항을 확장하여, 현재 사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식 수준, 그리고 향후 필요한 사항을 탐구하기 위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및 지식'과 '부실 학술지 관련 필요사항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대학도서관

<표 1>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수	문항	응답	척도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환경 측면	4	학술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	단일	등간
		학술정보 주제 전문 사서 유무	단일	명목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관련 서비스 유형	다중	명목
		논문 투고를 위한 학술지 문의 및 지원요청 빈도	단일	명목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및 지식 측면	12	부실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	단일	등간
		부실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문의 및 지원요청 빈도	다중	명목
		대학 기관 내 도서관 외 부실 학술지 정보제공 부서	단일	명목
		부실 학술지 출판 관련 대학 기관 내 책임 부서	단일	명목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응대를 위한 정보원	다중	명목
		부실 학술지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	다중	명목
		부실 학술지 특징에 대한 지식 수준	단일	등간
		부실 학술지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	단일	등간
		부실 학술지 서비스에 대한 부담 수준	단일	명목
		대학의 부실 학술 활동 서비스 준비 수준	단일	명목
부실 학술지 관련 필요사항 인식 측면	7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다중	명목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	다중	명목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다중	명목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추후 활동 계획	단일	등간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세미나 참여 의사	단일	등간
		부실 학술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일	명목
인구통계학적 사항	9	연령, 성별, 학생규모, 대학지역, 경력, 학력, 전공, 학술지 논문 출판 여부, 의과대학 여부	단일	명목

학술정보서비스의 환경 측면은 현재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의 대략적인 운영내용과 사서들이 보유한 관련 지식 수준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부실 학술지 판별에 있어 연구자와 대학도서관 사서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Teixeira da Silva & Tsigaris, 2018)을 고려하여,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느끼는 부담 수준 또한 그들의 부실 학술활동 관련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대학 도서관 사서와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를 비교 측정하고자 의과대학 소속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의학 분야의 경우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해 최신의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던 팬데믹 시기에, 약탈적 학술지를 통한 낮은 수준의 논문이 급증했던 상황(Nicholas et al., 2023)에서 의학 도서관 사서들이 해당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 실제 의료행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Wallace, 2019) 부실 학술지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학 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장혜란, 김정아, 2017) 사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 학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2024년에 주최한 'T-shaped Librarian' 워크숍에서 '오픈액세스와 약탈적 학술지'를 주제로 기초연설을 진행하는 등 부실 학술 활동에 집단적인 관심을 보

였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부실 학술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과 일반 대학 도서관 사서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기 설문지는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온라인 사서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10명의 사서로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다. 테스트 결과 부실 학술지와 관련해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이나 지식수준의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부실 학술지의 특징(이은지 외, 2020)은 무엇인지와, 어떤 경로로부터 부실 학술지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와셋대회 참석 사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홍명아, 심원식, 2024) 최초 인지 경로 또한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파일럿 테스트 과정에서 사서들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특정 기준과 더불어 동료 사서와의 의견을 많이 참고한다는 의견과 부실 학술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세미나의 경우 같은 직군의 동료로부터 솔직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받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Lipscomb et al., 2009). 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사서들이 부적절한 인력배치로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이선애, 2024) 일회성인 세미나에 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는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구글폼으로 제작되어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었는데, 사서 커뮤니티에 해당 설문 링크가 담긴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개별 발송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78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데이터는 Excel 및 SPSS를 사용하여 코딩 작업을 거쳤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온라인에 설문을 게시하고, 개별 이메일로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제한된 인원만이 설문에 응답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근거 연구인 Buitrago-Ciro(2022)는 남미 19개 나라의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전체 표본의 크기가 104개였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먼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해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은 유사한 개체 간 동질적인 그룹끼리 그룹화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기초 및 응용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Lund & Ma, 2021). 본 연구는 주제에 대한 초기의 탐색적 연구로 군집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소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군집분석(Fonseca, 2012)인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파악하고자 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직접 군집의 수를 지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군집의 결과를 비교해 군집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k개의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희찬, 조광현, 2005). k-평균 군집 분석 이후 군집이 잘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NOVA(일원배치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 환경 상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 도서관 사서들과 일반 대학 도서관 사서들을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교차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 경력, 규모, 지역 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표본에서 의과대학 사서는 총 19명으로 전체 응답자(78명)의 1/4 수준이다.

4.1 부실 학술지 관련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 인식 수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부실 학술지 이슈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비율(%)
성별	남	32	41.0
	여	46	59.0
연령	20대	15	19.2
	30대	26	33.3
	40대	17	21.8
	50대 이상	20	25.6
경력	1년 미만	8	10.3
	1~5년	22	28.2
	6~10년	15	19.2
	11~15년	7	9.0
	15년 이상	26	33.3
학생규모	5000명 미만	13	16.7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25	32.1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24	30.8
	2만명 이상	16	20.5
지역	서울 및 수도권지역	41	52.6
	비수도권	37	47.4
학력	학사학위	42	53.8
	석사학위	33	42.3
	박사학위 이상	3	3.8
전공	문헌정보학	60	76.9
	문헌정보학 비전공	18	23.1
논문출판	없음	60	76.9
	1~2번	14	17.9
	3번 이상	4	5.1
의과대학 사서	해당	19	24.4
	미해당	59	75.6

사서 대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단 사서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 항목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아래에 제시한다.

4.1.1 응답자의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 수준, 인지 경로 및 관련 서비스 문의 수준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 내 학술정보주제전

문 사서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가 아직 없다(41명, 52.6%)라고 응답하였다.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 수준은 〈표 3〉과 같이 일반적인 학술정보 지식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하다(24명, 30.8%)와 매우 부족하다(8명, 10.3%)의 응답자 수가 풍부하다(14명, 17.9%)와 매우 풍부하다(2명, 2.6%)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

〈표 3〉 학술정보 및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

항목		n	%	평균	표준편차
학술정보 지식 수준	매우 풍부하다(5)	3	3.8	3.13	.73
	풍부하다(4)	17	21.8		
	보통이다(3)	45	57.7		
	부족하다(2)	13	16.7		
부실 학술지 지식수준	매우 풍부하다(5)	2	2.6	2.72	.97
	풍부하다(4)	14	17.9		
	보통이다(3)	30	38.5		
	부족하다(2)	24	30.8		
	매우 부족하다(1)	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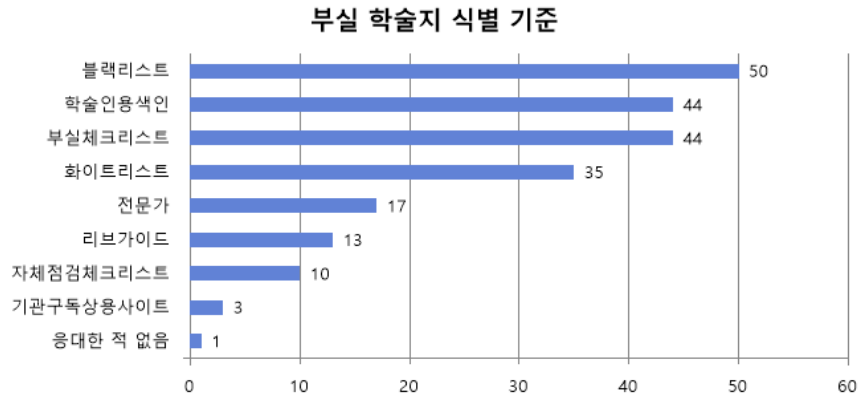
한편, 부실 학술지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된 경로 중 가장 많은 것은 WASET 및 OMICS 상태로 비롯된 ‘부실 학술대회 사태’(21명, 26.9%)였으며, 코로나19 가짜논문과 같은 ‘부실 학술지 논란’(15명, 19.2%) 및 동료사서(12명, 15.4%)였으며, 워크숍과 대학기관(각 8명, 10.3%)으로부터 인지하게 된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응답자가 학술지 및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경험은 모두 ‘받은 적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일반적인 학술지(32명, 41.0%)에 비해 부실 학술지 문의 빈도(42명, 53.8%)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itrago-Ciro(2022)의 결과와도 비슷한데, 이는 연구자가 부실 학술지 문제를 인식 하지 못해 문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였다. Klain-Gabbay와 Shoham(2018)에 따르면 이러한 문의 부재 현상은 연구자가 사서의 전문 역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문의하지 않았을 수 있고, 사서의 경우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구자와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1.2 응답자의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정보원 및 기준

응답자들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응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원은 SAFE와 같은 국내의 공식 사이트였으며(62명), Beall’s list나 JCR과 같은 국외의 사이트(40명)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사서와의 상담(25명)이나, 부실학술 관련 정보원이 잘 게시되어 있는 타대학 도서관 사이트에도 많이 의존(23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관련 워크숍(12명)이나 연구자 커뮤니티와 같은 기타 정보원(10명)도 다소 사용되고 있었다.

부실 학술지 식별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그림 1〉과 같이 ‘블랙리스트’였으며(50명, 23%), SAFE에서 제공하는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와 h-index와 같은 ‘학술지 인용색인’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4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Cabells Predatory Reports²⁾와 같은 기관 구독 상업 서비스를 사용(3명)하거나 응대한 적이 없어 식별기준 자체를 모르는 경우(1명)도 있었다. 상업 서비스를 이용하

2) <https://cabells.com/solutions/predatory-reports>



〈그림 1〉 부실 학술지 식별에 사용되는 기준

는 사서의 경우 모두 경력이 11년 이상이다. 이는 대표적인 상업 서비스인 Cabells 리스트가 많은 불규칙성과 잘못된 근사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Dony et al., 2020), 경력이 짧은 사서가 해당 리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1.3 부실 학술지 서비스 관련 부담 수준 및 책임 부서 인식

응답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

는지, 또는 준비 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서비스 제공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32명, 4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위한 준비 수준에 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담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준비 미흡 및 부담 이유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표 5〉와 같이 제공준비 미흡 사유로는 ‘학술정보 전담 사서의 부재(20명)’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부담 사유로는 ‘실제로는 부실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를 부실 의심 학술지로

〈표 4〉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준비 및 부담 수준

항목	n	%	평균	표준편차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준비 수준	매우 그렇다(5)	2	2.6	2.8	.97
	그렇다(4)	16	20.5		
	보통이다(3)	32	41.0		
	그렇지 않다(2)	20	25.6		
	매우 그렇지 않다(1)	8	10.3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 수준	매우 크다(5)	9	11.5	3.6	.82
	크다(4)	37	47.4		
	차이가 없다(3)	28	35.9		
	작다(2)	2	2.6		
	매우 작다(1)	2	2.6		

〈표 5〉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준비 미흡 및 서비스 부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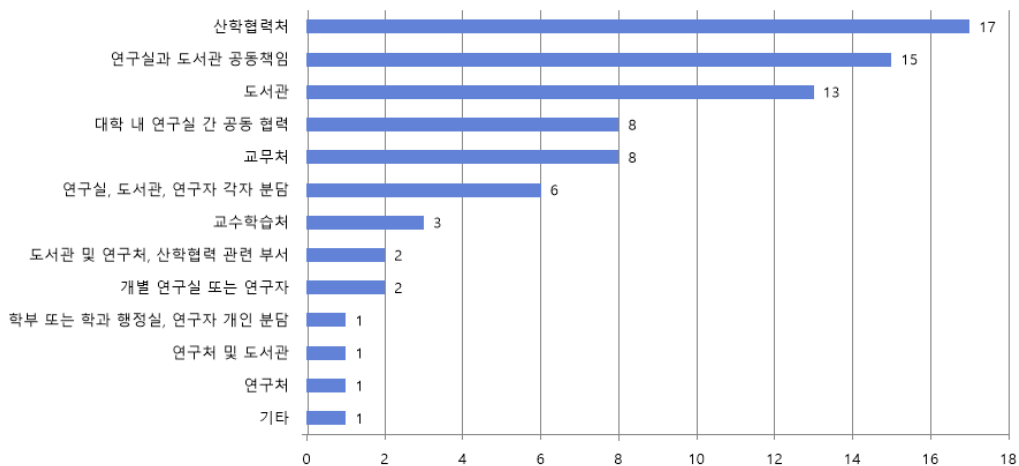
항목		n	%
서비스 제공 준비 미흡 이유	학술정보 전담 사서 부재	20	33.3
	도서관 내 관련 전문서비스 부족	18	30.0
	사서들의 관련 지식 및 전문성 부족	12	20.0
	연구자들의 문의 부재	7	11.7
	기타	3	5.0
서비스 제공 부담 이유	부실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를 부실 의심 학술지로 분류했을 가능성 때문에	11	26.8
	명확하지 못한 기준을 사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11	26.8
	이미 논문 투고 연구자를 부정 행위자로 판단할 가능성 때문에	8	19.5
	부실 학술지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4	9.8
	개인적인 가치관이 식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때문에	4	9.8
	특정 학술지를 낙인찍는 행위처럼 느껴져서	2	4.9
	연구자들 간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 때문에	1	2.4

분류했을 가능성'과 '명확하지 못한 기준을 사용해 부실 학술지를 분류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았다(각 11명).

부실 학술지 서비스 관련 책임을 대학 내 어떤 부서가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산학협력처'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7명(2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실과 도서관이 공동책임(15명, 19.2%)', '도서관(13명, 16.7%)' 순으로 나타났다. 부실 학술지 문제가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및 실적 평가와 주로 관련이 있는 만큼, 교무처나 산학협력처와 같은 부서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학술지 출판지원 책임 부서



〈그림 2〉 부실 학술지 출판 지원 책임 부서

4.1.4 부실 학술지 문의 대처 관련 필요 및 중요 지식

특정 지식의 필요성이란 해당 지식의 용도, 쓸모의 정도를 의미하고 중요성이란 해당 지식의 의미, 의미를 지칭한다. 대학도서관 사서들

이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6>, 중복응답 허용), 가장 많은 응답자(53명, 67.9%)가 '학술정보의 전반적인 이해'와 '부실 학술지의 특징 이해'에 대한 지식이라고 응

<표 6> 부실 학술지 문의 관련 필요 및 중요 지식

항목		n	%
학술 정보의 전반적인 이해	필요	53	67.9
	중요	40	51.9
전통적 출판 및 동료심사에 대한 이해	필요	33	42.3
	중요	27	35.1
오픈액세스 모델에 대한 이해	필요	30	38.5
	중요	30	39.0
오픈액세스 APC에 대한 이해	필요	25	32.1
	중요	17	22.1
오픈액세스 학술지 리스트 지식	필요	26	33.3
	중요	19	24.7
디지털 미디어 사용 능력	필요	14	17.9
	중요	11	14.3
오픈액세스와 부실 학술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필요	30	38.5
	중요	27	35.1
부실 학술지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한 이해	필요	51	65.4
	중요	35	45.5
연구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필요	25	32.1
	중요	20	26.0
연구비 지원 기준에 대한 이해	필요	10	12.8
	중요	7	9.1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	필요	13	16.7
	중요	12	15.6
부실 학술지의 특징에 대한 이해	필요	53	67.9
	중요	48	62.3
블랙리스트 지식	필요	46	59.0
	중요	48	62.3
화이트 리스트 지식	필요	31	39.7
	중요	30	39.0
학술지 품질 지표 관련 지식	필요	38	48.7
	중요	35	45.5
학술지 평가 능력	필요	38	48.7
	중요	36	46.8

답하였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식은 '블랙리스트 지식'(46명, 59.0%), '부실 학술지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한 이해(51명, 6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는 응답자의 62.3%(48명)가 '부실 학술지의 특징 이해'와 '블랙리스트 지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식은 '학술정보의 전반적 이해'(40명,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느끼는 지식이 '부실 학술지의 특징 이해'인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른 지식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학술정보의 전반적인 이해'와 '부실 학술지의 종류에 대한 이해' 두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한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학술정보의 전반적 이해와 부실 학술지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외부 지원(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블랙리스

트 게시'(45명, 58.4%)가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 직원 교육'이 57.1%(44명), '리브가이드 마련'이 49.4%(38명), '국가차원의 규제 확대'가 45.5%(35명) 높게 나타났다.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 식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 판별을 바라거나, 더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리브가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1.5 부실 학술 관련 향후 활동 사항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부실 학술활동과 관련된 대학도서관의 사서의 경험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응답자의 73%(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조사한 결과 역시 응답자의 74%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실 학술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항목		n	%	평균	표준편차
세미나 참여 의사	매우 그렇다(5)	18	23.1	3.9	.90
	그렇다(4)	39	50.0		
	보통이다(3)	16	20.5		
	그렇지 않다(2)	3	3.8		
	매우 그렇지 않다(1)	2	2.6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매우 그렇다(5)	20	25.6	4.0	.79
	그렇다(4)	38	48.7		
	보통이다(3)	19	24.4		
	매우 그렇지 않다(1)	1	1.3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서 '보통이다' 이하의 응답을 한 응답자들(20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명)'와 기타 응답(3명)으로 '교육까지 받기엔 도서관이 열악해서', '운영 실효성의 의문'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부실 학술 활동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지원 계획 없음(39명, 50.0%)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서관 웹사이트 내 게시(20명, 25.6%),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정보 제공(10명, 12.8%),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확대(5명, 6.4%), 교직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3명, 3.8%), 학술정보주제전문 사서 고용(1명, 1.3%)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인 Buitrago-Ciro(2022)의 경우 추후 활동 계획으로 학술정보주제전문 사서를 고용하거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차이가 있는 점이다. Buitrago-Ciro(2022)의 연구는 응답자의 절반이 관장급의 고

위 관리자였고, 본 연구는 일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고려한다면, 부실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개개인 사서가 의사가 있어도 재정 및 인력 문제 등 직원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활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재정 및 인력이 소모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4.2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학술지 인식에 대한 k-군집 분석 결과

군집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설문 문항 중 등간척도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학술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부실 학술지 서비스에 대한 부담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세미나 참여 의사는 부실 학술지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척

<표 8> 등간척도 항목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척 도					
	학술정보 지식수준	부실 학술지 지식수준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준비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	세미나 참여의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
학술정보 지식수준	1					
부실 학술지 지식수준	.663**	1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준비	.277*	.436**	1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	-.028	-.215	-.097	1		
세미나 참여의사	.283*	.316**	.295**	.057	1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	.255*	.110	.145	.125	.7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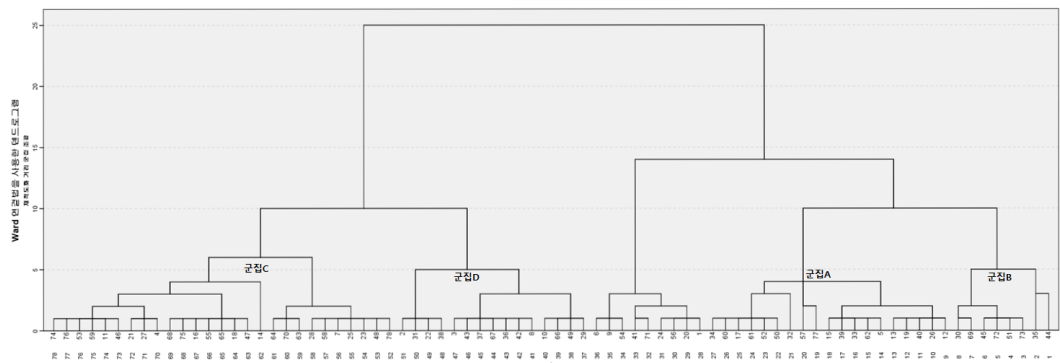
* $p < .05$, ** $p < .01$

도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참여 의사는 부실 학술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와 높은 상관관계(0.725)를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에 일련의 패턴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한 덴도그램을 확인한 후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덴도그램을 살펴보았을 때 <그림 3>과 같이 3~4개의 집단으로 군집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보다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경우 ANOVA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대부분 변수에서 유의도(p)가 0.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군집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나뉜 군집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ANOVA 분석 및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모든 척도들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림 3> 계층 분석-덴도그램 표

<표 9> k-군집 분석 결과

변 수	분 류				F	p
	군집A (n=14)	군집B (n=14)	군집C (n=30)	군집D (n=20)		
학술정보 지식수준	2.79	2.79	2.87	4.00	25.1	.000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	2.57	1.64	2.53	3.85	37.1	.000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준비	2.14	1.71	3.23	3.35	21.9	.000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	2.86	4.64	3.53	3.60	19.5	.000
세미나참여의사	2.79	3.71	4.17	4.30	14.4	.000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	3.14	4.07	4.17	4.20	8.20	.000

3) Levene 검정 결과 '세미나 참여 의사'를 제외한 모든 척도의 오차변량이 동질적으로 확인됨(p>.05). '세미나 참여 의사' 척도에 대해서는 Welch 검정을 통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p<.05).

〈표 10〉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척도 및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df	에타제곱	유의도	사후검정
학술정보 지식 수준	군집A	14	2.79	.43	25.1	3	.504	.000	A,B,C<D
	군집B	14	2.79	.70					
	군집C	30	2.87	.43					
	군집D	20	4.00	.56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	군집A	14	2.57	.76	37.1	3	.601	.000	B<A,C<D
	군집B	14	1.64	.50					
	군집C	30	2.53	.63					
	군집D	20	3.85	.59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준비 수준	군집A	14	2.14	.66	21.9	3	.471	.000	A,B<C,D
	군집B	14	1.71	.61					
	군집C	30	3.23	.73					
	군집D	20	3.35	.81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 수준	군집A	14	2.86	.95	19.5	3	.369	.000	A<B,D<C
	군집B	14	4.64	.50					
	군집C	30	3.53	.57					
	군집D	20	3.60	.50					
세미나 참여의사	군집A	14	2.79	0.70	14.4	3	.369	.000	A<C,D
	군집B	14	3.71	1.14					
	군집C	30	4.17	0.53					
	군집D	20	4.30	0.66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군집A	14	3.14	.77	8.2	3	.249	.000	A<B,C,D
	군집B	14	4.07	.83					
	군집C	30	4.17	.59					
	군집D	20	4.20	.70					

특히 학술정보지식 수준과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의 경우 에타제곱값이 0.5 이상으로 군집 간에 관련 지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후검정 결과 거의 모든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세미나 참여 의사’ 척도의 경우 군집 B를 제외한 나머지 군집들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⁴⁾

〈표 10〉에 나타난 측정 척도에 대한 각 군집의 평균값과 〈표 11〉에 있는 각 군집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분포를 참조하여 4개의 군집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이 가능하다. 다만 설문 참여한 사서수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러한 군집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술이 탐색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밝힌다.

4) 등분산 가정이 충족된 척도에 대해서는 Scheffe 사후검정, 그렇지 않은 척도에 대해서는 Dunnett-T3 사후 검정 적용하였음.

〈표 11〉 군집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과대학 (n=19)
	전문사서		연령				경력			지역		학생규모				
	있음	없음	20대	30대	40대	50대~	5년 이내	6~10년	10년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5천명 미만	5천~1만명	1~2만명	2만명 이상	
군집A (n=14)	5	9	3	5	4	2	7	3	4	6	8	1	7	5	1	1
군집B (n=14)	3	11	2	6	2	4	5	4	5	6	8	3	7	1	3	2
군집C (n=30)	17	13	7	9	5	9	14	3	13	19	11	2	9	11	8	8
군집D (n=20)	12	8	3	6	6	5	4	5	11	10	10	7	2	7	4	8

군집 A(14명)의 경우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집단으로서 학술정보 지식과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실 학술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준비 및 서비스 부담 정도도 낮았다.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에는 학술주제전문 사서가 없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5년 이내인 사서가 많았다. 대부분 일반대학 사서(13명)로 구성된 군집이다.

군집 B(14명)의 경우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집단으로서, 군집 A와 마찬가지로 학술정보 및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 제공 준비도 미흡하며,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다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연령 및 지역, 경력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징으로는 대부분 소속된 대학에 학술주제전문 사서가 없고(11명)의과대학 사서가 아닌 일반대학 사서(1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C(30명)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된 군집으로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있어 비교적 적극적인 집단이었다.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집단 대비 서비스 제공 준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며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도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에 포함된 사서 상당수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사서(19명)였으며, 5년 이내의 사서와 10년 이상의 사서가 대부분을 차지해 6~10년의 중간의 경력을 가진 사서가 없다. 또한 의과대학 사서가 많이 소속(8명)되어 있다.

군집 D(20명)의 경우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집단으로서 학술정보 및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 세미나 참여의사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서비스 제공 준비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제공 부담 정도도 어느정도 있다. 이 군집의 특징은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서가 많았고(11명), 학술주제전문 사서도 절반정도 있는 것(12명)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C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사서가 많이 포함(8명)되어 있었다.

군집 간 차이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각 군집에 명명한 명칭 및 군집 간 세부특성은 <표 12>와 같다. 이러한 군집의 특성을 살펴볼 때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사서들의 인식 수준에는 개인적인 차이뿐 아니라 소속 대학, 근무 환경과 같은 조직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의학 도서관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에 대해 비교적 또는 가장 적극적인 집단인 군집 C와 D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학술주제 전문 사서의 배치 유무, 대학의 지리적 위치 등도 군집 형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의과대학 사서와의 비교분석

마지막으로 의과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을 제외한 명목척도를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3>과 같이 학술지 및 부실 학술지 문의 빈도, 부실 학술지 인지

경로, 차후활동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정리하자면 의과대학 사서들은 일반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학술지 및 부실 학술지 문의에서 ‘받은 적 없음’이 가장 많은 것과 다르게, 학술지의 경우 ‘한 달에 한 두 번’, 부실 학술지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가장 많아 일반 대학도서관에 비해 관련 문의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대학 도서관 사서들이 주로 ‘부실 학술대회 사태’로부터 부실 학술지를 처음 인지했다면,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워크숍’으로부터 처음 인지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차후 활동계획에 있어서도 ‘지원계획 없음’이 가장 많은 일반대학 도서관 사서와 다르게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웹사이트 내 게시’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활동 계획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등간척도 항목들을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우선 두 집단 간의 수에 차이가 큰 바 우선 모집단이 동일한 지 알아보기 위해

<표 12> 군집 명명 및 세부 특성

군집	세부 특성
군집 A(가장 소극)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저참여 저경력 사서 집단	초기 경력 사서가 많은 사서로, 관련 서비스 제공 준비도 미흡하며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여 의사 낮음.
군집 B(비교적 소극)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준비 미흡 집단	학술주제전문 사서가 부재한 경우가 많은 사서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제공 준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서비스의 부담을 강하게 느끼지만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는 낮지 않음.
군집 C(비교적 적극)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의향 집단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도서관 사서로 중간 경력이 없으며,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은 부족하지만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여 의사 적극적임.
군집 D(가장 적극)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적극 제공 고경력 집단	경력이 오래된 사서들로서 현재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제공이 잘 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여 의사 적극적임.

〈표 13〉 의과대학 사서와 일반대학 사서 간 교차분석 결과⁵⁾

구분		분류				p
		의과대학		일반대학		
		빈도	%	빈도	%	
학술지 문의빈도	받은 적 없음	2	10.5	30	50.8	.001
	한 달에 한 번 미만	5	26.3	17	28.8	
	한 달에 한 두 번	8	42.1	8	13.6	
	일주일에 한 번	2	10.5	4	6.8	
	주 2~3회	1	5.3	0	0.0	
	매일	1	5.3	0	0.0	
부실 학술지 문의빈도	받은 적 없음	3	15.8	39	66.1	.000
	한 달에 한 번 미만	8	42.1	14	23.7	
	한 달에 한 두 번	7	36.8	6	10.2	
	일주일에 한 번	1	5.3	0	0.0	
부실 학술지 인지경로	부실학술대회 논란	5	26.3	16	27.1	.041
	부실 학술지 논란	2	10.5	13	22.0	
	부실 학술지 홍보 이메일	2	10.5	4	6.8	
	팝플렛 또는 포스터	0	0.0	1	1.7	
	워크숍	6	31.6	2	3.4	
	연구자	1	5.3	2	3.4	
	동료사서	2	10.5	10	16.9	
	대학기관	0	0.0	8	13.6	
	연구과제 혹은 신문기사	1	5.3	3	5.1	
차후 활동계획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5.3	2	3.4	.001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7	36.8	3	5.1	
	도서관 웹사이트 내 게시	7	36.8	13	22.0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확대	0	0.0	5	8.5	
	학술정보 주제전문 사서 고용	0	0.0	1	1.7	
	지원계획 없음	4	21.1	35	59.3	

먼저 Leven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등간척도 중 부실 학술지 지식 수준, 부실 학술지 서비스 부담도를 제외하고 학술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 대학의 부실 학술 활동 서비스 준비도, 부실학술 활동 관련 세미나 참여 의사, 부실 학술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항목에서만 오차변량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p > .05$). 다음으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학술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표 1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의과대학 사서는 일반대학 사서에 비해서 부실학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더 잘 되어있으며, 세미나 참여의사와 교육 프로그램

5)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 셀의 50% 이상으로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실시함.

〈표 14〉 의과대학 사서 및 일반대학 사서 간 t-test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부실학술 관련 서비스 제공준비도	의과대학	19	3.26	.87	2.496	76	.015*
	일반대학	59	2.64	.96			
세미나참여의사	의과대학	19	4.26	.65	2.229	76	.029*
	일반대학	59	3.75	.94			
교육프로그램 참여의사	의과대학	19	4.32	.82	2.223	76	.029*
	일반대학	59	3.86	.58			

* $p < .05$

참여 의사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변화된 학술출판 환경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 요구도 단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넘어, 교수들이 직접 사서들에게 학술적 문이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선애, 202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로서 연구자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자칫 부실 학술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학술 출판 문해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Buitrago-Ciro, 202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의 대학도서관에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 연구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현재 부실 학술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부실 학술지에 대한 지식 수준, 서비스 제공 경험, 서비스 부담 수준 및 책임 부서 등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개인적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응답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는 가장 소극적인 집단인 부실 학술지 서비스 미참여 저경력 집단, 비교적 소극집단인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준비 미흡 집단, 비교적 적극 집단인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의향 집단,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집단인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적극 제공 고경력 집단으로 잠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집단과 가장 소극적인 집단 간에는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서들 간에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도서관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서관의 재정적 어려움, 인력 부족 등으로(Klain-Gabbay & Shoham, 2018) 도서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세미나, 교육 프

로그래에 참여의사가 낮은 사서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인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서들의 인식 제고와 환경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세미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군집 분석 결과, 가장 적극적인 집단에 비해 나머지 3개 집단은 학술정보 지식 수준 및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고무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사서가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사서들은 세미나에는 참여 의사가 있어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 의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소극적인 군집들의 경우 세미나 참여의사 보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 학술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회성인 세미나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인 군집들은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협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했던 의학 도서관 사서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이 당장은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변하는 학술 환경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관련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술정보 주제전문 사서의 고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술정보 주제전문 사서는 저작권, OA 출판 등 점점 복잡해지는 학술생태계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자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한다(Brantley et al., 2017). 지식 수준은 낮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비교적 소극적 군집의 경우 대부분 학술주제전문 사서가 부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것 외에도, 학술정보 주제전문 사서를 고용한다면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도서관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서관과 연구자 간 학술정보 서비스 협력이 긴밀하게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도서관과 연구자 간 학술지 및 부실 학술지 관련 문의 빈도가 높았던 의학 도서관 소속 사서의 경우 대부분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군집들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부실 학술 활동 관련 향후 활동계획에 있어서도 대부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아무리 대학도서관이 충분한 학술정보 지식을 갖추고 연구자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정경희, 2012), 정작 연구자가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Brantley et al., 2017). 따라서 의과대학 도서관의 사례처럼, 연구자와 도서관 간 학술정보 협력의 강화가 대학도서관의 부실 학술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표본의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의 연구를 위한 초기의 연구 결과로서 보다 많은 사서를 대상으로, 또한 사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만이 아닌 객관적인 운영 현황 데이터와 함께 추가적인 세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따른 계량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해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참여를 원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의 경험과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자들을 연구윤리 관련하여 부실의심 학술지 출판 예방법⁶⁾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을 만큼 부실 학술지 관련 문제는 연구자들이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연구

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이 소속된 학회 및 학술 단체도 부실 학술지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의 가장 밀접한 파트너로서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 관련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로서 연구자들에게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는 대학도서관에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순 (2019).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정보관리학회지, 36(1), 7-3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07>
- 노영희 (2023).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부실의심학술지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정보학보, 27(3), 213-234. <https://doi.org/10.18397/kcgr.2023.27.3.213>
- 노영희, 강지혜, 김용환, 양정모, 이종욱 (2022).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93-1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 노영희, 양정모, 강지혜, 이종욱, 김용환 (2023).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의심 학술활동 근절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3), 59-75. <http://doi.org/10.5392/JKCA.2023.23.03.059>
- 박진서, 윤진혁, 이준영 (2019). 학술논문 데이터로 바라 본 부실 학술지 게재비중의 국가별·분야별 비교(KISTI DATA INSIGHT 8호).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
- 박희찬, 조광현 (2005). 사회지표조사 자료의 K-평균 군집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 NRF 연구윤리교육포털. 2024. 부실의심 학술지 출판 예방법. Available: <https://cre.nrf.re.kr/ocw/home/kor/education/default/view.do?menuPos=1&act=detail&idx2=81>

- Society, 7(2), 465-476.
- 이병렬, 이종수 (2018). 온라인 저널 활용실태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2(3), 41-69.
<http://doi.org/10.18398/kjlgas.2018.32.3.41>
- 이선애 (2024). 대학도서관 사서 직업에 대한 경험적 의미와 딜레마: Giorgi의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관리학회지*, 41(2), 353-37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353>
- 이용재, 이지옥 (2020).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의 현단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05-32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이은지, 김혜선, 남은경, 김완중 (2020).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해외 출판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37(4), 109-130.
<http://doi.org/10.3743/KOSIM.2020.37.4.109>
- 이인재 (2022). 부실학술활동 예방. *감정평가학논집*, 21(3), 191-208.
- 이종욱, 박종규, 최재황, 광도원 (2019). 국가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학술정보자원 결정요인 분석.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효빈, 김해도, 김소형, 천기우, 신정범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ISSUE REPORT 2019-1호). 대전: 한국연구재단(NRF).
- 장혜란, 김정아 (2017).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직무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45-26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45>
- 정경희 (2012).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 COPE 참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6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045>
- 홍명아, 심원식 (2024). 국내 연구자 커뮤니티 구성원의 부실 학술지 인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2), 97-13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97>
- Aboyade, W., Ndubuisi-Okoh, E. O., Okoche, C., & Oladokun, B. D. (2024). Impact of predatory journal publishing on scholarly practices among academic librarians in Nigeria: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Seminars in Medical Writing and Education*, 3, 60.
<https://doi.org/10.56294/mw202460>
- Beall, J. (2012). Predatory Publishers and Opportunities for Scholarly Societies. 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eting, 8-10. Available: <http://eprints.rclis.org/18044/>
- Brantley, S., Bruns, T. A., & Duffin, K. I. (2017). Librarians in transition: Scholarly communication support as a developing core competency.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 29(3), 137-150. <https://doi.org/10.1080/1941126X.2017.1340718>
- Brewerton, A. (2012). Re-skilling for research: Investigating the needs of researchers and how library staff can best support them.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8(1), 96-110.
<https://doi.org/10.1080/13614533.2012.665718>

- Buitrago-Ciro, J. & Bowker, L. (2020). Investigating academic library responses to predatory publish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2(4), 625-652. <https://doi.org/10.1108/AJIM-03-2020-0089>
- Buitrago-Ciro, J. (2022). How are academic libraries in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 responding to new models of scholarly communication and predatory publishing?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4(3), 373-388. <https://doi.org/10.1177/09610006211016533>
- Cabells. (2019, March 13). *Predatory Reports Criteria*. Available: <https://cabells.com/predatory-criteria-v1.1>
- Cohen, A. J., Patino, G., Kamal, P., Ndoeye, M., Tresh, A., Mena, J., Butler, C., Washington S., & Breyer, B. N. (2019). Perspectives from authors and editors in the biomedical disciplines on predatory journals: Survey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8), e13769. <https://www.jmir.org/2019/8/e13769>
- Crosetto, P. (2021, April 12). *Is MDPI a Predatory Publisher?*. Available: <https://paolocrosetto.wordpress.com/2021/04/12/is-mdpi-a-predatory-publisher/>.
- Dony, C., Raskinet, M., Renaville, F., Simon, S., & Thirion, P. (2020). How reliable and useful is Cabell's Blacklist ? A data-driven analysis. *LIBER Quarterly*, 30(1), 1-38. <https://doi.org/10.18352/lq.10339>.
- Ebadi, S. & Zamani, G. (2018). Predatory publishing as a case of symbolic violence: A critical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approach. *Cogent Education*, 5(1). <https://doi.org/10.1080/2331186X.2018.1501889>
- Elmore, S. A. & Weston, E. H. (2020). Predatory journals: What they are and how to avoid them. *Toxicol Pathol*, 48(4), 607-610. <https://doi.org/10.1177/0192623320920209>.
- Fonseca, J. R. S. (2012). Clustering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That is your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6(5), 403-428. <https://doi.org/10.1080/13645579.2012.716973>
- Inter Academy Partnership (2022, March). *Combatting Predatory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Available: <https://www.interacademies.org/project/predatorypublishing>
- Klain-Gabbay, L. & Shoham, S. (2018).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academic library: Perceptions and recent developments. *IntechOpen*. <https://doi.org/10.5772/intechopen.82075>
- Kurt, S. (2018). Why do authors publish in predatory journals?. *Learned Publishing*, 31(2), 141-147. <https://doi.org/10.1002/leap.1150>
- Lipscomb, C. E., Martin, E. R., & Peay, W. J. (2009).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 The NLM/AAHSL leadership fellows progra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49(8), 847-867. <https://doi.org/10.1080/01930820903396970>
- Lund, B. & Ma, J. (2021). A review of cluster analysis techniques and their u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K-means and k-medoids cluster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etrics*, 22(3), 161-173. <https://doi.org/10.1108/PMM-05-2021-0026>
- Mertkan, S., Aliusta, G. O., & Suphi, N. (2021). Profile of authors publishing in 'predatory' journals and causal factors behind their decision: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Evaluation*, 30(4), 470-483. <https://doi.org/10.1093/reseval/rvab032>
- Moore, A. (2020). Predatory preprint servers join predatory journals in the paper mill industry... *BioEssays*, 42. <https://doi.org/10.1002/bies.202000259>
- Nicholas, D., Rodri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Clark, Dj., Herman, E., Xu, J., Świgoń, M., Serbina, G., Abrizah, A., Sims, D., Jamali, H. R., Tenopir, C., & Allard, S. (2023). Early career researchers and predatory journ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international analysis. *El Profesional de la Informacion*, 32, 1699-2407. <https://doi.org/10.3145/epi.2023.ene.17>
- Oviedo-García, M. Á. (2021). Journal citation reports and the definition of a predatory journal: The case of the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MDPI). *Research Evaluation*, 30(3), 405-419. <https://doi.org/10.1093/reseval/rvab020>
- Plutchak, T. S. (2012). Breaking the barriers of time and space: The dawning of the great age of librarians. *J Med Libr Assoc*, 100(1), 10-9. <https://doi.org/10.3163/1536-5050.100.1.004>
- Retraction Watch (2023). Nearly 20 Hindawi Journals Delisted from Leading Index amid Concerns of Papermill Activity. Available: <https://retractionwatch.com/2023/03/21/nearly-20-hindawi-journals-delisted-from-leading-index-amid-concerns-of-papermill-activity/>
- Teixeira da Silva, J. A. & Tsigaris, P. (2018). What value do journal whitelists and blacklists have in academia?.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6), 781-792. <https://doi.org/10.1016/j.acalib.2018.09.017>
- Thomas, W. (2013). The structure of scholarly communications within academic libraries. *Serials Review*, 39, 167-171. <https://doi.org/10.1016/j.serrev.2013.07.003>
- Wallace, W. A. (2019). Publish and be damned: The damage being created by predatory publishing. *Bone Joint*, 101-B(5), 500-501. <https://doi.org/10.1302/0301-620X.101B5.BJJ-2018-1330.R1>
- Zhao, L. (2014). Riding the wave of open access: Providing library research support for scholarly publishing literacy.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45(1), 3-18.

<https://doi.org/10.1080/00048623.2014.882873>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Hye Rhan & Kim, Jeong A (2017). A study on the job burnout of medical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45-26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45>
- Hong, Myoung-A & Shim, Won Sik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datory journals among members of the Korea researcher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97-13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97>
- Joung, Kyoung Hee (2012). A study on the roles of academic libraries for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Focusing on the academic libraries participated in COP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6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045>
- Kim, Soon (2019). University library's new research support service focusing on scholarly communication in open science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7-3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07>
- Lee, Byung-Ryul & Lee, Jongsoo (2018).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 onl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2(3), 41-69. <http://doi.org/10.18398/kjlgas.2018.32.3.41>
- Lee, Eun Jee, Kim, Hyesun, Nam, Eunkyung, & Kim, Wan Jong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identifying the predatory journals published abro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4), 109-130. <http://doi.org/10.3743/KOSIM.2020.37.4.109>
- Lee, hyobin, Kim, Haedo, Kim, So-hyeong, Chun, Gi-Woo, & Shin, Jeongbeom (2019). Key Features and Preventive Measures of Poor Academic Activities(ISSUE REPORT No. 2019-1). Daeje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 Lee, In Jae (2022). Preventing submissions to fake and predatory journals and conferences. *Appraisal Studies*, 21(3), 191-208.
- Lee, Jongwook, Park, Joong Kyu, Choi, Jae Hwang, & Kwak, Do Won (2019). Determinants of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on National Research Competitiveness. Daegu: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Lee, Sun-Ae (2024). Empirical meanings and dilemmas of the profession of an academic librarian: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353-37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353>
- Lee, Yong Jae & Lee, Ji-Wook (2020).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of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academ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305-32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Noh, Younghee (2023). A research on misconception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Open Access journals and predatory journal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7(3), 213-234. <https://doi.org/10.18397/kcgr.2023.27.3.213>.
- Noh, Younghee, Kang, Ji Hei, Kim, Yong Hwan, Yang, Jeong-Mo, & Lee, Jongwook (2022).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for enhancing the soundness of academic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4), 93-1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 Noh, Younghee, Yang, Jeong-Mo, Kang, Ji Hei, Lee, Jongwook, & Kim, Yong Hwan (2023). A study on measures to eradicate suspicious academic activities for improving soundness of academic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3), 59-75. <http://doi.org/10.5392/JKCA.2023.23.03.059>
- Park, Heechang & Cho, Kwang-Hyun (2005). K-means clustering of social indicator survey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7(2), 465-476
- Park, Jinseo, Yun, Jinhyuk, & Lee, June Young (2019). Comparison of the Acceptance rate of Predatory Journals in country and field by Research data(KISTI DATA INSIGHT No. 8).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